



중국 섬유업체, 인도네시아에 투자 고려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의류 및 신발 브랜드를 생산하는 중국 섬유 제조업체가 인
도네시아에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

MONTHLY **KOFA**

코파의

정음

Ruko Pinangsia Block B No.25, Tangerang, Jl. Boulevard Jend. Sudirman, RT.001/RW.009,
Panunggan Bar., Kec. Cibodas, Kota Tangerang, Banten 15138, Indonesia
Tel. 0856 9113 2325, 0821 1122 8827 E-mail : indokofa@gmail.com



Vol. **115**
2024/04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KOFA 제인니한국신발협의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입국자 수화물, 반입 제한 규정 시행 연기... 논란의 소지 남아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 3월 10일부터 입국하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 대한 수화물 반입 제한 규정을 시행한지 1주일만에 전격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지 언론 CNN인도네시아는 관련 기사 제목을 ‘반입품 일부 연기’ (Zulhas Tunda Sebagian Aturan Batas Impor Barang Penumpang Pesawat)라고 기술해 논란의 소지가 아직 남아 있다.



1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줄끼플리 하산 무역장관은 전날 ‘무역부 장관령 제36호’가 이해당사자들의 민원이 쇄도해 시행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관 등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질 여지도 있다. 줄끼플리 장관은 지난 17일 시행 연기와 관련,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시행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검토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해, 세관에서 통관 문제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문 “Jadi seka-rang yang bisa jalan, jalan dulu, nanti mana yang keberatan kita bahas. Mungkin pelaksanaannya sebagian, sebagian ditunda sampai sosialisasi selesai.” 앞서 지난 14일 줄끼플리 장관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수화물 반입 규정 시행과 관련하여 “입국자 반입 수화물을 제한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장관령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론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카르타 떠나아방 시장을 방문한 줄끼플리 장관은 기자들에게 “ 무역부 장관령 No. 36

‘무역부 장관령 No. 36 2023’ 반입 물품 제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축산제품(최대 5kg, 최대 미화 1,500달러)
- *쌀, 설탕 및 원예 작물 등 (최대 5kg, 최대 미화 1,500달러)
- *진주 (최대 FOB 미화 1,500달러)
- *수산물 (최대 25kg)
- *휴대폰, 태블릿 PC, 휴대용 컴퓨터 (최대 1인당 2대/1년)
- *완구 (최대 FOB 미화 1,500달러)
- *핸드백 또는 서류가방 (최대 1인당 2개)
- *신발 (최대 1인당 2켤레)
- *전자제품 (최대 5대 및 최대 FOB 미화 1,500달러)
- *자전거 (최대 1인당 2대)
- *알코올음료 (최대 1인당 1리터)
- *플라스틱 제품 (최대 FOB 미화 1,500달러)
- *섬유 또는 의류 (최대 5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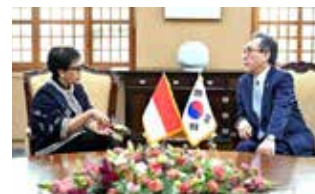
[데일리인도네시아]

2023’에 명시한 반입품을 초과할 경우,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민원이 접수된 만큼 다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해 명확하지 않은 위딩을 했다. 장관은 이어 “기념품(증정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증정품인지, 상업용 물품인지의 판정은 세관의 소관이다”라고 덧붙였다. 장관령에 명시된 규정 이상 반입할 경우에 해당 물품은 상업용으로 간주되며, 세관에서 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세부적인 관세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장관령 반입품 제한 규정 시행과 관련, 해석이 분분해 이해관계자 간에 혼선이 빚어졌다.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 두번째 회담 개최... “특별 전략적 동반자”

조태열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에 기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8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취임 후 두 번째 회담을 개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계기로 만나 두 번째 회담을 가지고 있다. [사진=외교부]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조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세 번째(인구 기준)로 큰 민주주의 국가이자 2008년 이래 발리 민주주의 포럼을 개최하는 등 민주주의에 대해 기여해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조 장관은 레트노 장관이 2년 연속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회의에 참석해 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해준 데 사의를 표했다. 이에 레트노 장관은 양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이자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앞으로도 지역·글로벌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앞서 두 장관은 지난 13일 개최된 차관급 전략대화의 성과를 평가하고,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KF-21·IF-X) 등 전략적 협력사업이 원활히 진행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주경제]

“올해 건기, 지난해보다 덜 가물 것” 기상청

인도네시아 기상청은 올해 건기가 지난해에 비해 덜 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17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산불진화 모습 [사진: 한인나산림협력센터]

2023년에는 예년보다 길게 지속된 엘니뇨 기상현상으로 인해 2019년 이후 가장 극심한 가뭄이 발생해 농작물 피해와 산불을 악화시켰다.

하지만 올해는 건기가 지난해만큼 건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산불의 심각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탄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산불 위험이 있으므로 주

의가 필요하다. 지난해에는 116만 헥타르 이상의 숲이 불에 타는 등 2019년 이후 가장 심각한 산불이 발생했다. 이는 2022년에 발생한 산불 면적의 5배 이상이다.

산불에 취약한 지역은 리아우, 남부 수마트라, 람뽕, 잠비, 그리고 남부 및 중부 칼리만탄이 지목됐다. 이 지역들은 대규모 팜유 농장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건기는 평소보다 늦은 5월과 6월에 자바 섬과 칼리만탄, 술라웨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다. 건기는 7월과 8월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월부터는 약한 라니냐 기상 패턴의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것이며, 이는 보통 더 많

은 강수량을 가져와 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라니냐 패턴은 작년의 엘니뇨 패턴과는 반대로, 2024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록 파종 지연으로 인해 올해 초기 쌀 수확량이 부진했지만, 농업 당국은 올해 말까지 식량 생산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현재 수마트라와 자바의 일부 지역은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지난주 수마트라 서부에서는 홍수와 산사태로 최소 30명이 사망하고 7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www.hanjinpower.com

Jl. Raya Serang - Jakarta KM. 80, Kel. Kaserangan, Kec. Ciruas -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www.hanjinpower.com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기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협상 방향 협의

제20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및 공동연구 워크숍 개최

디지털 등 신통상 규범을 반영한 자유무역협정 개선 방향 모색



한국과 아세안회원국들은 3월 12일(화)~13일(수) 자카르타에서 제20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 현안 점검 및 자유무역협정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우리측 안창용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과 아세안측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알파나 로이(Alpana Roy) 아세안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한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대표단 등이 양일간 이행위원회에 참석했다.

특히 이번 이행위원회를 계기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 및 디지털 통상 공동연구 워크숍을 함께 개최하여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공동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그간 양측은 지난 2020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따른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해왔다.

워크숍에서의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을 기업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고 디지털, 공

급망 등 신통상 이슈를 반영한 자유무역협정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 모색을 위해 밀도있는 협의를 진행했다.

한편 이번 이행위원회에서 베트남측은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AKTIGA) 제3차 개정 의정서(한국은 2016.1.1. 발효)가 지난해 11월 국내 비준을 완료하고 발효되었음을 보고했다.

그간 베트남측은 자국 양허표상 오류 등을 주장하며 비준을 지연시켜 왔었으나, 늦게나마 발효되어 자유무역협정 세율의 안정적 적용이 가능해지고, 양 당사국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 논의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한편, 이번 이행위원회 개최 계기에 우리측은 아세안 사무국과 별도 면담을 통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RCEP) 기여금 공여 계획과 경제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안창용 국장은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고도화해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주아세안대표=테일러인도네시아]

건보공단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제도 합리적 개선”

내달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후 피부양자 자격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은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한국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피부양자 건강보험 제도를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뜻한다.

1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족, 친인척)나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국내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보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것과 대비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내달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후 피부양자 자격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은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 (PG)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하지만 오는 4월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이후에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만 건보공단은 피부양자가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린다.

지금까지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

차별이 없었다.

내달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후 피부양자 자격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은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올리고서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도서출판/인쇄 광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21-3002-9087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F1 LOGIX
We are anywhere you are

www.f1-logix.com

하늘길, 땅, 바닷길 그리고... F1

F1 LOGIX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Leading Logistic Provider

- 4PL
- 항공, 해상운송
- 내륙운송
- 통관대행
- 물류 컨설팅
- 물류 OS
- W&D 사업

재외동포청,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재외동포에게 근본적인 이익 주며 파급효과가 큰 사업과 민생·현장 중심 사업 추진
핵심 사업은 한국 발전상의 외국 교과서 수록 프로젝트



▲3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합동 브리핑에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3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부와 합동 브리핑을 갖고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2024년 외교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에 이어 브리핑에 나선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올해 재외동포청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재외동포에게 근본적인 이익을 주며 파급효과가 큰 사업, 그리고 민생·현장 중심의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회성 행사 중심의 재외동포 사업이 아닌 재외동포에게 근본적인 이익을 주며 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민생현장에서 재외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 중소기업 해외 진출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사업에 역점을 두는 등 국가적 동반자이자 자산인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들과 함께 국가와 동포사회의 동반성장을 추구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재외동포청의 올해 역점 과제로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국력에 걸맞은 재외동포 보호·지원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강화 ▲획기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 등 네 가지를 꼽았다. 특히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지원이라는 2가지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해 외국 교과서에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수록하는 프로젝트를 동포사회, 외교부, 국내 민간단체와 협력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앞에 2가지 목표에 더해 한류의 지속적 확산에도 시너지 효과를 내며, 자체 브랜드가 약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에도 기여하고, 인류의 공동번영에도 기여하는 1석 5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이 청장의 설명이다. 3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합동 브리핑에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을 발표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원폭 피해 동포와 과독 근로자 동포의 국내 초청에 이어 사할린 동포, 고려인 동포, 다문화 가정 동포 등 그동안 소외돼 온 동포들의 모국 방문 초청 사업 등을 시행해 왔다. 이에 더해 위난 상황의 피해 동포 등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을 위해 국내 교과서에 재외동포에 관한 올바른 기술이 포함되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한인회(세계한인회장대회),

경제(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교육(한글학교 초청연수), 언론(재외동포언론인 초청연수), 차세대(세계한인차세대대회) 등 각 분야별 네트워크도 촘촘히 연결한다. 특히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더욱 내실화해 올해 대회에서도 우리 중소기업의 상품 수출과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동포들의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외동포청 민원실에서 여러 부처 소관의 민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통합 민원 서비스

를 제공한다. 이 청장은 “올해 수립한 과제들을 실행해 나감에 있어 낮은 자세로 재외동포와 소통하는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의 손톱 밑 가시를 빼어드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청, 현장과 민생 중심의 재외동포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자랑스런 우리 700만 재외동포를 보호 지원하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다. [재외동포신문=데일리인도네시아]

중국 섬유업체, 인도네시아에 투자 고려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의류 및 신발 브랜드를 생산하는 중국 섬유 제조업체가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 1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해양조정장관실의 투자 및 광업 담당 차관인 셉티안 하리오 스 또는 서부 자바에 공장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히며, 중국 상하이 남쪽 닝보에 공장이 있는 잠재적 투자자를 만났고 이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섬유 공장을 짓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 시설에 투입될 투자액은 수억 달러에 달하며 약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중국 섬유 회사는 직원과 그 가족을 위해 기숙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엔 콤트레이드 데이터베이스(United Nations Comtrade database)의 자료에 따르면, 인



▲서부 자바 반둥 지역의 마자라야 산업 단지에 있는 직물 공장.2019.1.4 (사진=안따라/Raisan Al Farisi)

도네시아의 무역 분류코드 HS(Harmonized System) 61과 62에 따른 섬유, 의류 및 액세서리 수출은 2022년 96억 달러에 달한 반면 수입은 5억 8,600만 달러에 불과했다. 2023년 1분기에 한국은 125개 프로젝트에 총 2,900만 달러를 투자해 인도네시아 섬유 산업에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국가였다. 2023년 6월 비즈니스닷컴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은 27개 프로젝트에 총 1,400만 달러를, 인도는 1,100만 달러를 직접 투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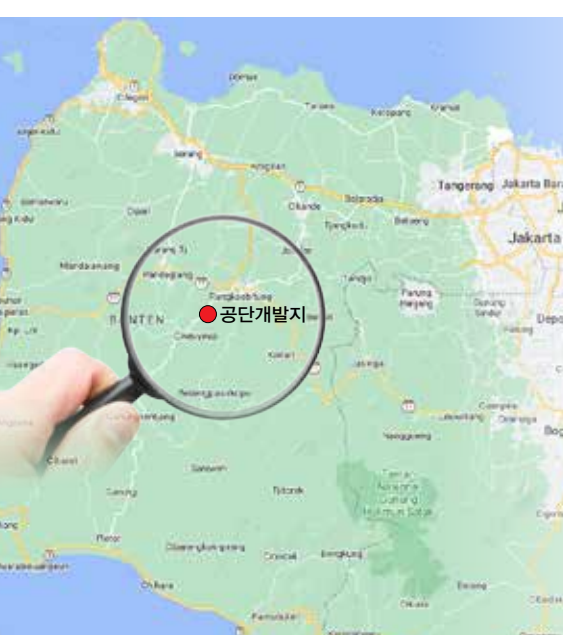
지난 1월 인도네시아 신발협회(Aprisindo)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가죽 제품 및 신발 산업은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5억 7,430만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했다. 산업부 화학, 제약 및 섬유 산업국(KFT)의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섬유 및 신발 산업은 2023년에 약 470만 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유엔 콤트레이드 데이터(HS 코드 64)에 따르면 2022년 인도네시아의 신발 수출액은 77억 4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수입액은 10억 달러를 조금 넘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인도네시아의 신발 수출은 59억 달러로 감소했으며, 인도네시아 신발협회는 그 원인을 긴장된 지정학적 상황으로 꼽았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Kawasan Industri Rangkas Bitung by PT. Muns Cipta Bangun

최적의 산업단지 분양!

왜 멀리서 찾지?



우리가 몰랐던 이곳! ... 공항, 항만과 땅그랑 도심 가까이
저렴한 인건비, 노동인력 풍부한 지역으로
100hr 규모로 조성합니다!

1. 위치 : Rangkas Bitung, Lebak, Banten
2. 면적 : 100 hr (1,000,000 M2)
3. 공간개발지 산업용지로 지정 완료.
4. Serang-Panimbang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이 용이함. Tol Gate에서 10분거리.
5. Kabupaten Lebak 인구수 : 2020년 조사기준 약 138만명
6. 최저임금 : 2024년 기준 Rp 2,978,764 으로 BANTEN주내 최저이며, 인구가 많아 노동집약적 산업에 적합함.
7. 분양가 : Rp 800,000/M²
7.1 부가세, 취득세, 이전비용 별도
7.2 공단내 도로, 배수로 및 부지평탄작업등 기본토목공사 완료기준.
8. 시행 및 시공사 : PT. Muns Cipta Bangun

문의처 : 081190097773 (whatsapp)
kakaoTalk ID : muns.id
Email : munsclub@muns.id

Grand Serpong Mall (Great Western Resort) Lt. UG No. 6,
Jl. MH. Thamrin KM. 2.7, Kebon Nanas, Kel. Panunggangan Utara,
Kec. Pinang, Kot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143
Tlp. 021-5541747 | E-mail. munsclub@muns.id, munsclub33@gmail.com
www.muns.id

인니 부가가치세 인상, ‘역효과’ 로 국가 수입에 위협



▲시민들이 자카르타 텃민 거리를 지나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전문가들은 올해 부가가치세(VAT) 인상이 국가 수입을 위협하고 인도네시아의 세율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들은 정책 입안자들이 부가가치세율을 1%포인트 올려 12%로 인상하는 것이 가져올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고려할 것을 촉구하며, 즉각적인 국가 수입을 창출하려는 시도가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부가가치세 인상 계획은 옴니버스 세법으로 알려진 법률 7/2021호에 근거한 것으로, 2022년에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1%로, 2025년 1월 1일까지 12%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계획은 현재 조코 위도도 대통령 행정부가 논의 중인 2025년 국가예산안의 일부로 심의될 예정이며, 2024년 10월 비준될 예정이다. 경제금융개발연구원(Infef)의 압둘 마납 불롱안 연구원은 지난 1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인도네시아 경제가 현재 좋은 상태가 아니며 이 계획을 진행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인상은 즉각적인 국가 수입 증대를 약속하지만 특히 전반적인 경제가 약할 때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비용을 증가시켜 경제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 활동에 대한 부담금 압력은 소비자 지출이 둔화되어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면 부가가치세 인상이 세입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제는 2023년에 5.05% 성장하여 정부 예상치를 약간 웃돌았지만 2022년의 5.3%보다는 감소했다. 국가 GDP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가계 지출의 성장률은 전년도 4.93%에서 2023년 4.8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력은 지난 3분기 동안 뚜렷하게 나타난 경기 둔화로 인해 자카르타의 통화 정책 긴축과 상품 수요가 약화되면서 이미 둔화된 경제 성장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 재정 정책을 긴축하면 경기 부양을 위한 여지가 거의 남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센터(CORE)의 모하마드 파이살 이사는 13일,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관리물가(administered price)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2월에 2.75%를 기록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수치는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인 1.5~3.5% 내에 안전하게 머물렀다. 파이살은 관리물가 인플레이션

이 없다면 인플레이션은 연중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관리물가가 크게 인상되면 물가가 크게 인상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특히 새로 들어서는 정부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센터는 인도네시아의 GDP 성장률이 2024년 4.9%~5%로 더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투자와 정부 지출이 약간 증가하는 반면 가계 지출은 연말까지 더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디지털 경제 책임자인 나이를 후다는 지난 12일,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11%로 유지할 수 있는 옵션이 있지만, 경제조정장관이 "선거의 연속성"을 강조한 것은 새 정부가 이번 정부 프로그램을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법에 규정된 12% 세율을 고수하겠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나이를은 부가가치세 인상이 국가 수입과 세율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간주되며, 이는 브라보워의 목표와도 일치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인플레이션이 2% 이상으로 유지되는 한 부가가치세 인상은 상품과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소득 계층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가난한 가정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신따 캄다니 회장은 지난 13일, 부가세 인상은 이미 부진한 구매력을 악화시키고 부가세를 회피하려는 비공식 경제활동을 더욱 장려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따 회장은 최종 소비자만큼이나 기업들도 이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부가가치

세 인상이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가 가계 지출을 촉진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대체 세원** 전문가들은 법인세 및 사치품세와 같은 대체 세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누진적 소득세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압둘은 농업 부문을 예로 들며 현재 GDP 수준에서 성장을 촉진하려면 부가가치세 인상이나 세율 조정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며, 아직 과세되지 않는 부문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를 인상하면 특정 그룹,

특히 부유층을 대상으로 세율을 35~40%까지 올릴 수 있지만 현재의 주택 및 자동차에 대한 사치품 인센티브와 함께 시행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이살도 이에 동의하며 누진적 개인소득세 구조는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특히 디지털 무역과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문의 법인세를 면밀히 살펴볼 것을 촉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데이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2021년 인도네시아의 국가 세수에서 2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법인소득세가 28.9%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개인소득세는 총 수입의 9%에 불과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라마단 앞두고 알록달록 묘지 꾸미기



▲(틱톡 계정@aloyusjarot 영상 캡처)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이슬람력으로 금식을 시작하는 라마단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한다. 라마단 성월을 맞이하여 지역 사회는 해당 지역의 전통에 따라 다양한 전통 활동을 수행한다. 그 중 하나는 중부 자바 클라텐(Klaten) 지역의 독특한 전통으로 묘지를 다양한 색상으로 꾸미는 것이며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진 전통이라고 한다. 이 과정을 담은 영상이 며칠 전 틱톡@aloyusjarot 계정에 업로드됐다. 짧은 영상 속에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심지어 핑크색까지 다양한 색상으로 묘지를 하

나하나 칠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다. 영상 속 정보에 따르면, 무덤을 화려하게 칠하는 전통의 목적은 묘지가 주는 으스스한 느낌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는 라마단 기간 동안 저녁 기도 따라위(tarawih)를 위해 밤에 외출하거나 일출 전 식사 사후르(Sahur)를 위해 음식을 사러 나가는 주민들이 묘지 지역을 지나갈 때 무섭지 않도록 해주는 일종의 배려가 아닐까. 이 영상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자신이 죽으면 무슨 색으로 해달라는 재밌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자카르타경제신문]



PRIME SPA AND HEALTH CARE CLUB

산소(O₂)같은 사우나!

쾌적함과 청결함은 사우나의 기본입니다. PRIME SPA 는기분을 잘 지키는 상쾌한 휴식공간입니다. 또한 사우나와 헬스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재충전 및 휴식공간입니다.



Karawaci Lippo Maxbox Mall, Jl. Boulevard Jend. Sudirman No. 1110, Bencongan, Kec. Kel. Dua, Kab. Tangerang, Banten 15810
Tel. 021 3893-4005 WA. +62 8224-900-3560
E-mail. primespa001@gmail.com



인니 2월 수출 감소, 수입 증가로 무역흑자 간신히 유지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월 수출은 급감하고 수입이 급증하면서 인도네시아의 무역 흑자는 최근 몇 달 동안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말리아 아디닝가르 위디아 산띠 통계청장 대행은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2월 무역 흑자가 8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 4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작년 5월의 4억 3천만 달러 이후 37개월 만에 최저치이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수출은 전년 대비 9.45% 감소한 193억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팜원유(CPO), 철강, 석탄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6%, 22.1%, 1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말리아는 해바라기유와 같은 대체 제품에 대한 새로운 무역 채널이 열리면서 팜원유(CPO) 수요가 감소해 가격이 하락했고, 그 외에도 중국과 인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팜원유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월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5.84% 증가한 184억 4천만 달러로 전기 장비, 기계 장비 및 플라스틱의 선적 증가



▲북부자카르타 판중뿌리옥 자카르타국제컨테이너터미널(JICT)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에서 기인했다. 정부가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재고를 확보함에 따라 쌀이 대량으로 수입된 것도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첫 두 달 동안 인도네시아는 5억 6,460만 달러 상당의 쌀 880,800톤을 수입했으며, 그 중 약 60%는 태국에서, 나머지는 파키스탄과 미얀마에서 수입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인도와 올해 첫 두 달 동안 각각 25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중국과의 양자 무역에서 32억 6천만 달러의 적자로 인해 상쇄되었으며, 이는 중국으로의 팜원유, 비철금속 및 니켈 수출 가치 하락으로 인해 발생했다. 민간은행인 다니몬 은행의 경제학자 이르만 파이즈는 수출 감소는 지속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원자재 가격과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입 증가는 생산자들이 라마단 금식 기간과 이슬람 피프티 연휴를 앞두고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비축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수입 급증은 이슬람 피프티 축제가 끝나면 정상화되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몇 달 동안 글로벌 수요 약세의 영향이 수출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수입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르만은 “따라서 무역수지 흑자 폭이 작년에 이어 축소 추세를 이어가 올해 경상수지 적자 폭이 국내총생산의 0.8%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작년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0.1%를 기록했다. 상장 은행인 뿌르마파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수아 빠테데는 무역 흑자 폭이 축소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올해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GDP의 약 0.7%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경상수지가 확대되면 특히 상반기에 루피아 안정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반기에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신흥국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를 강화하여 자본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에 경상수지 확대의 영향이 잠재적인 글로벌 정책 금리 인하로 상쇄될 것이라고 조수아는 말했다. 경상수지 적자는 한 국가가 무역과 서비스를 통해 거둘 수 있는 수입보다 더 많은 달러를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경상수지 적자는 한 국가가 전 세계에 부채를 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인니 전자결제업체 ‘인도다나’와 협약 체결

디지털 플랫폼 기반 대출 출시



▲신한인도네시아 본점에서 열린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인도다나(Indodana) 업무협약식’에서 구형희 신한인도네시아은행 법인장(왼쪽)과 인도다나 Jerry Anson Director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신한인도네시아 은행이 디지털 플랫폼 대출시장 기반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전자결제업체 ‘인도다나(PT Artha Dana Teknologi Indodana)’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인도다나는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은 디지털 결제 솔루션 업체다. 물품구매 후 소액대출을 통해 후불결제(BNPL)를 할 수 있는 서비스와 할부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e커머스 시장에서 활성고객 약 83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두 기업이 함께 출시하는 대출은 인도다나의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상품이다. 인도다나 플랫폼에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대출을 신청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서 1차적으로 신용한도 심사가 진행되고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의 2차심사를 거

쳐 대출이 이뤄진다. 신한은행은 인도다나와의 협업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리테일 고객 기반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출상품은 다음달 출시할 예정이다. 구형희 신한인도네시아은행 법인장은 “동남아시아에서 ‘선구매 후결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크레디보(Kredivo)에 이어 인도다나와도 협업해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높였다”며 “다양한 플랫폼 업체와의 제휴로 리테일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2016년 설립됐으며 현재 35개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자산 15억4000만달러를 달성, 설립 이후 5배 이상의 자산 성장을 이루는 등 빠르게 현지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처 : 서울파이낸스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PT ALLJIUM GREEN NUSA

정직하고 품질좋은 제품으로 인정받겠습니다!

— **LS-AG Cable Indonesia** 공식 대리점 —



저압케이블/Building 케이블



산업용 케이블



Overhead 케이블



Busduct

HEAD OFFICE
Ruko Dalton Extension DLNT 052-053
Jl.Scientia Boulevard, Gading Serpong,
Curug Sangereng, Kelapa Du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810
Tel: 0811 8126 7788 (한국인 상담)
0811 8430 561

LS-AG Cable Indonesia

www.lscns.com
www.lsag.co.id

Karawang 공장
Artha Industrial Hill
Blok E Kav 20-21, Wanajaya,
Telukjambe Barat, Karawang
Jawa Barat 41361, Indonesia
Tel : 021 3973 3988

OFFICIAL DISTRIBUTOR | 공식 대리점
PT ALLJIUM GREEN NUSA

인니 정부, 라마단 기간 동안 식품 가격 안정 유지 약속



▲서부 자카르타 재래시장(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는 수요 증가로 인해 식품 가격이 치솟는 상황 속에서 라마단이 시작됐고 경제학자들은 향후 두 달 동안 추가로 물가가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정부는 생필품을 저렴하게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고 12일 자카르타 포스트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국가전략식품가격정보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라마단을 4일 앞둔 지난 8일 현재, 중간 품질의 쌀 가격은 전년 대비 10% 가까이 상승한 킬로그램당 16,000루피아를 기록했다. 엘니뇨 기후 현상으로 일부 지역에 가뭄과 수확 지연이 발생한 지난해부터 정부의 상한선인 킬로그램당 10,900~11,800루피아를 초과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추 가격은 지난 8일 기준 전년 대비 12% 상승하여 중앙은행이 모니터링하는 주요 식품 중 올해 가장 많이 올랐다. 그 뒤를 이어 계란이 11%, 대용량 식용유가 10%, 가금류가 6% 상승했다.

국가식품청(Bapanas)의 식량 가용성 및 안정화 담당 차장

인 이 구스피 끏트 아스파와는 지난 7일 쌀, 닭고기, 소고기, 양파, 샐러드, 고추와 같은 필수 식품의 공급이 라마단, 이틀 피프리, 그리고 다음 달을 위한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국가식품청은 쌀 가격이 4월에 정점을 찍고 수확기에는 “적당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계란도 비슷한 가격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끄똘트는 국가식품청이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저가 식량 프로그램, 식량 유통 및 작물 재배 개선 등을 통해 향후 몇 주 동안 가격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 농부들에게는 고추를 더 일찍 심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쌀 가격은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식량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러한 경향은 엘니뇨로 인해 더욱 뚜렷해졌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은 1월부터 4월까지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17.54%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끄똘트는 도정하지 않은 쌀(GKP)의 전국 평균 가격이 kg당 7,200 루피아를 기록해 국가조달청(Bulog)이 재고를 늘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정부 매입 가격(HPP)인 kg당 5,000 루피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추세로 볼 때, 도정한 쌀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꺾질을 벗기지 않고 부분적으로 말린 쌀의 두 배이기 때문에 쌀 가격을 정부의 상한선 이내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개혁센터(CORE)의 농업 연구원 엘리자 마르디안은 높은 식량 가격이 반복되는 계절적 패턴과 부적절한 수확 후 도정 기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엘리자는 제분, 기업, 소매, 지역사회 차원에서 쌀의 유통과 재고를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고 수년간 설명되지 않았던 데이터 불일치를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식량 생산 과정을 개선하기를 희망했다.

쁘르마타 은행의 수석 경제학자 조수아 빠데데는 지난 8일, 식량 수요 증가가 공급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앞지를 것이며, 이는 추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3월과 4월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약 3%로 상승할 수 있지만 여전히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인 1.5~3.5% 이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변동성이 큰 식품 가격이 급등했으며, 인도네시아 통계청의 2월 데이터에 따르면 전년 대비 8.47% 상승하여 2022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2월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2.75%로 더 광범위하게 유지됐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지난 3월 1일 발표에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통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도네시아가 공급과 유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변동성이 큰 식품 가격이 결국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2월에 올해 변동성이 큰 식품 가격의 연간 상승률을 5% 미만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르랑가 하르파르도 경제 조정장관은 지난 8일, 정부가 캄보디아 등 주변국에 로비를 통해 해외에서 더 많은 쌀 공

급을 확보할 것이며, 이틀 피프리 이전에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식품청(Bapanas)의 끏트는 식량 가격과 공급을 더 안정시킬 수 있도록 재무부에 예비 식량 예산 배정을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이 예산을 통해 조달청(Bulog)과 국영식품주회사 ID FOOD는 훨씬 낮은 이자율로 국영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대출금은 현지 농부들과 수입을 통해 식량을 확보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나이키 에어 맥스 Dn

‘화이트/레이서 블루’가 출시된다

에어 맥스 데이에 맞춰 출시될 예정.

나이키 에어 맥스 Dn은 에어 맥스 시리즈의 새로운 모델로, 네 개의 원형 튜브로 구성된 ‘다이나믹 에어’ 미드솔이 특징이다. 최근엔 해당 실루엣을 기반으로 한 슈프림 협업 제품이 공개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화이트/레이서 블루’ 컬러웨이는 화이트 컬러 메시 어퍼와 각종 블루 컬러 디테일이 특징이다. 어퍼의 돌기를 비롯해, 미드솔과 아웃솔, 그리고 스우시 등은 블루 컬러로 채색됐다. 한편, ‘Dn’ 브랜드가 적힌 폭싱과 에어 유

[Hypebeast]

톱스 목금형 (톱스발형)

아크릴 커팅, 밴딩가공

생산성 향상

짧은제작기간

정밀성

품질 향상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빼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톱스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톱스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 ://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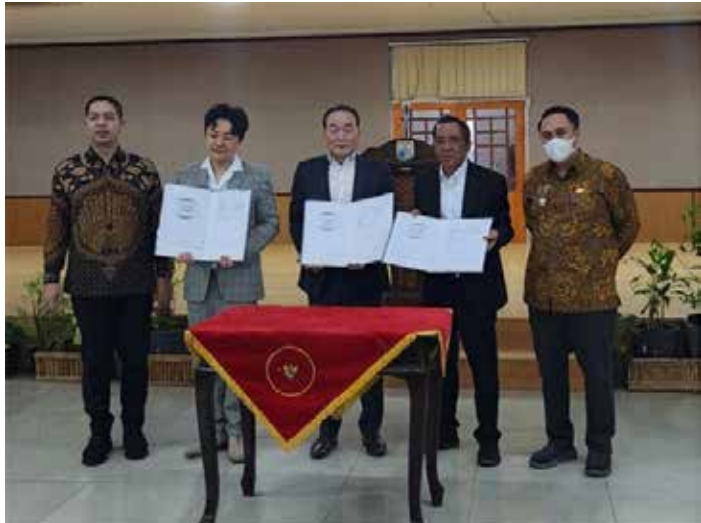
H.P : 010-3842-3239 E-mail : 1987busan@naver.com

http://www.bsl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톱스금형, 특수 칼금형

PT.버킹엄 홀딩스, “인도네시아 반텐 690만평 1차 개발 참여”

지난 14일 “전략적 파트너 (주)아말 아르주나 자야바야와 제휴 협정 체결”



▲모카마드 하스비 아시디키 자야바야(Mochamad Hasbi Asyidiki Jayabaya, 프로젝트 SPC법인 대표 예정자), 박중선(Park Joong seon) 스노우시드 CMO, 이명진 (James Lee) 버킹엄 홀딩스 인도네시아 CEO, 무야디 자야바야(Mulyadi Jayabaya) 르박 섭정 2003-2013 PT Amal Arjuna Jayabaya 위원장, 이완 쿠르니아완(Iwan Kumiawan) 섭정 대행 /PT.버킹엄 홀딩스 제공

PT.버킹엄 홀딩스가 인도네시아 전략적 파트너인 아말 아르주나 자야바야 주식회사와 지난 14일 전략적 제휴 협정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PT.버킹엄 홀딩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협정으로 개발될 예정인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근교 반텐(Banten)시의 켄카나 산(Gunung Kencana) 지역과 레박(Lebak) 지구에 다양한 구성 요소와 통합된 다목적 단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개발사업지 총규모는 6000ha이며, 먼저 인도네시아 최고 품질을 갖춰 각종 인터내셔널 대회를 유치할 계획인 PGA 정규 36홀 골프장이 들어설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팜, 주거단지 등 산업단지, 학교, 병원, 쇼핑몰을 포함한 기타 잠재시설도 개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날 제휴 협정식에서 레박 지역의 이완 쿠르니아완(Iwan Kumiawan) 섭정 대행

은 “이 투자자의 존재는 레박 리젠시의 좋은 투자 환경을 보여준다. 이번 투자는 지역 경제를 포함한 지역 개발의 가속화를 지원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이 계약의 구현을 통해 르박 리젠시, 특히 르박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자로 참여한 PT. 버킹엄 홀딩스 박중선 이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많은 한국 기업을 인도네시아로 유치시켜 양 나라간 경제적 이익 및 수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중선 이사는 NFT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스노우시드 공동창업자로 전 세계일보 사장 고 박보희 총재의 손자로 알려졌다.

출처 : 포인트경제

기업은행, 인도네시아 방카슈랑스 강화... 현지고객 기반 확대

기업은행 인니 법인, 현지 종합보험사와 업무협약 체결 전 지점서 보험 상품 판매...건물·가구·장비 등 포함

기업은행이 인도네시아 방카슈랑스(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 사업을 강화했다. 인도네시아 현지고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은 최근 현지 종합 보험사인 아수란시 카크라알라 프로텍시 인도네시아(Asuransi Cakrawala Proteksi Indonesia)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기업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은 아수란시 카크라알라 프로텍시 인도네시아 보험 상품을 전 지점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보험 대상에는 △건물 △가구 △장비 △비품 △기계 △재고 등이 포함된다. 보험 상품 기간은 12개월이며 연장 가능하다. 갑작스럽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모든 위험과 물리적 손실을 합의된 규



▲(사진=기업은행 인도네시아 법인) 약에 따라 보장한다. 아수란시 카크라알라 프로텍시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등록·인가를 받은 종합 보험사로 △재산 보험 △자동차 보험 △화물 보험 △선박 프레임 보험 △엔지니어링 보험 △개인 상해 △건강 △책임 △기타 보험 및 소액 보험을 포함한 25개 이상의 일반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수자야 디나타 아수란시 카크라알라 프로텍시 인도네시아 사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고객·채무자의 재산 보장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기업은행 인도네시아 법인 방카슈랑스 책임자인 에드윈 루디안토는 “이번 협력은 방카슈랑스 강화 차원”이라며 “담보로 대출을 하는 고객·채무자들에게 이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9년 1월 인도네시아 현지 아그리스 은행과 미트라니아가 은행을 인수·합병해 인도네시아 법인을 출범했다. 현재 기업은행의 인도네시아 법인 지분 비율은 93.24%에 달한다. 대출액은 9조4000억 루피아(약 808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6.5% 늘었다. 작년 말 기준 총 자산은 19조4000억 루피아(약 1조6680억원)로 2019년 현지법인 출범 이후 3배 성장했다.

[THE GURU]

938만 ‘파묘’, 인도네시아→베트남 2호 흥행... 역대 최고 오프닝

개봉 24일 만에 900만 관객을 돌파하며 국내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파묘’가 아시아에서 폭발적인 흥행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어 화제다. 거액의 돈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들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담은 오컬트 미스터리 영화 ‘파묘’가 한국영화의 아시아 흥행을 견인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국내 개봉 이후 ‘파묘’는 해외 극장가에서도 흥행 열풍을 일으키며 한국 영화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2월 28일(수) 개봉한 인도네시아에서는 20일 만에 약 180만 관



객을 동원하며 현지 개봉 한국영화 흥행 1위에 올랐다. 특히 개봉 초반의 입소문을 타고 상영

횟수가 대폭 확대되어 동시기 현지 개봉한 ‘쿵푸팬더4’를 제치고 3일 연속 상영 스크린 수에서도 1위를 기록하는 등 인도네시아 극장가에 이변을 일으키고 있다. 이어 ‘파묘’는 3월 15일(금) 개봉한 베트남에서 ‘육사오(6/45)’를 넘어 한국영화 역대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하며 또 한 번의 흥행 열풍을 예고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역대급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는 ‘파묘’는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한가지라도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인도네시아 건설환경에 최적화 되어있는 **신화**는 고객의 마음에 신뢰를 심어주는 건설기업입니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성공전략을 **신화**가 함께 하겠습니다.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PT. SHINHWA TECHNO PLANT
Kawasan Industri Jababeka II
Jl. Industry Selatan 8 Blok EE-6P Cikarang, Bekasi 17530 Indonesia
Tlp. 021-8984-1283 Fax. 021-8984-1284
Email. shinhwatechno0408@gmail.com

아디다스, 올해 중화권 시장 매출 두 자릿수 증가 전망



▲지난달 17일 광시(廣西)장족자치구 류저우(柳州)시 장안(長安)진에서 장거리 달리기 대회에 참가한 조깅 애호가들. (사진/신화통신)

비외른 굴덴 아디다스 글로벌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아디다스의 중화권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굴덴 CEO는 13일(현지시간) 이 같이 밝히며 중국 시장이 지난해 아디다스 실적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확실히 중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중국 시장에서 성장하고 시장점유율을 높여 성공하고 싶다”고 밝혔다. 스포츠에 관심을 갖는 중국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 문화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어 더욱 많은 패션·트렌드·아이디어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시장이 앞으로도 아디다스의 글로벌 성장에서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아디다스가 발표한 재무보

고서에 따르면 중화권의 지난해 매출(환율 영향 제외, 이하 동일)은 31억9천만 유로(약 4조5천999억원)로 전년 대비 8.2% 늘었다. 그중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8% 급증한 6억7천만 유로(9천661억원)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아디다스의 글로벌 매출은 214억2천700만 유로(30조8천977억원)로 2022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아디다스는 올해 전 세계 매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를 유지할 것이지만 중화권과 라틴아메리카 시장의 매출 증가율은 두 자릿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북미시장 실적은 많은 재고와 수요 감소로 지난해에 이어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 서울뉴스통신

뉴발란스, 한일 야구스타 김하성, 오타니 팝업 오픈

“서울 잠실 뉴발란스 만나는 한일 야구의 살아있는 전설”

뉴발란스(NEW BALANCE)가 글로벌 앰버서더 김하성과 오타니를 상징하는 팝업을 열었다.

이번 팝업은 ‘미국 프로야구 리그(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를 기념해 선보이는 공간이다. 김하성과 오타니가 실제 경기에서 사용한 용품과 함께 팝업스토어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한정판 단독 상품 및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와 혜택을 제안했다.

뉴발란스는 팝업 오픈 기념해 김하성과 오타니 상징 한정판 ‘와펜’을 출시한다. 또, 해당 와펜을 기반으로 고객이 취향에 따라 반팔티셔츠, 맨투맨, 후드티, 모자를 직접 디자인 해 구매할 수 있는 DIY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 외에도 게임존을 마련해 야구를 쉽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며, 성공 사은품으로 뉴발란스 리유저블 짐백 등을 제공한다.

뉴발란스 관계자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미국 프로야구 리그(MLB) 공식 후원사이자 오타니, 김하성 선수가 앰버서더로 함께 하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가 ‘미



▲뉴발란스는 김하성과 오타니 상징 한정판 ‘와펜’과 이를 기반해 고객 취향에 따라 반팔티셔츠, 맨투맨, 후드티, 모자를 직접 디자인 구매할 DIY 이벤트를 연다.

국 프로야구 리그(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를 기념하기 위해 준비한 특별한 공간 “이라며 “뉴발란스가 후원하는 김하성과 오타니의 에너지 느끼고, 레전드 반열에 오른 그들의 여정에 함께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일주일 간 잠실 롯데월드몰 1층에 위치한 아트리움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디젤 발전기

BGT POWER SOLUTIONS

판매
임대

점검관리

수리

유지, 보수



소형 5kVA ~ 220kVA

중형 250kVA ~ 700kVA

대형 800kVA ~ 4,000kVA

오리지널!! 가격 경쟁력 제고! 고객사 니즈에 신속대응!
고객 맞춤형 시행! A/S철저! 철저한 유지,보수관리 제공!

고객 문의

박 찬 Hp : 0812 9512 8990



PT. BINTANG GLOBAL TEKNIK

Mutiara Taman Palem Blok C10 No. 90, Cengkareng, Jakarta Barat 11730, Indonesia
Tel: 021-2252-4373, 2252-4342 | Fax: 021-2252-4365 | Email : bakchan@daum.net





225g의 가벼움, 아식스의 노바블라스트 4

전 세계 러너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아식스의 대표적인 러닝화 ‘노바블라스트’의 네 번째 시리즈. 2020년에 탄생된 아식스의 노바블라스트 시리즈는 전 세계 러너들의 사랑을 받으며 출시되지마자 빠르게 솔드아웃을 기록하고 있는 러닝화! 2024년 2월, 노바블라스트 4 번째 모델인 노바블라스트 4는 활짝 핀 꽃과 피보나치 나선형 패턴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특히 이전 시리즈보다 더 기하학적인 구조의 미드솔에는 ‘FF BLAST™ PLUS ECO’ 쿠션을 적용해 가벼움은 물론 톱퉁 튀는 반발력을 느낄 수 있다. 이 품의 소재는 재생 가능한 원료인 사탕수수 가공에서 생긴 남은 폐기물과 같은 재료로 지속 가

능성에 대한 아식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브랜드 최초로 노바블라스트 시리즈에 Co2e 라벨이 부착된 노바블라스트 4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앞장서는 제품! 노바블라스트 4의 아웃솔은 발 뒤꿈치부터 전족부까지 중앙에 공간을 두어 트램폴린 효과가 극대화되었고, 신축성과 통기성이 우수한 자카드 우븐 소재를 사용해 더욱 편안한 착화감을 느낄 수 있다. 더욱 도톰해진 뒤꿈치 디테일과 밑창에는 내구성이 탁월한 ‘AHAR LO’ 기술을 적용해 더욱 오랫동안 안정적인 러닝을 유지할 수 있다. “독특한 미드솔 디자인으로 바운싱을 제공하는 노바블라스트 4는 모든 러너들에게 재미있는 러닝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이고 활기찬 에너지를 갖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프리미엄 스포츠 브랜드 아식스의 혁신에 대한 열정과 지속 가능성, 뛰어난 미적 디자인이 접목된 노바블라스트 4는 아식스 매장 공식 온라인 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국 점유율 1위!

한신 에어 콤프레셔

콤프레셔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 일반 인버터 타입 대비 **4%** 더 에너지 절약가능한 타입
2. FYH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유성열 : 0812 8037 0303 | 한상윤 : 0822 9999 1447 | Mariono : 0812 8763 965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JEPARA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카네이 신발’ 여파... 아디다스, 31년 만에 적자

스포츠브랜드 아디다스가 31년 만에 적자를 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디다스는 13일(현지시간) 실적발표에서 지난해 5천800만유로(약 835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디다스가 연간 기준 적자를 내기는 1992년 이후 처음이다. 아디다스는 힙합스타 예(옛 카네이 웨스트)의 신발·의류 브랜드 이지(Yeezy)와 2013년부터 협업했는데, 그가 유대인 혐오와 나치 찬양 발언

으로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하자 2022년 10월 계약을 중단했다. 이후 12억유로(약 1조7천억원)어치 재고 처리로 골머리를 앓았다. 이지 제품의 재고는 폐기하려다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7억5천만유로(약 1조1천억원)어치를 팔았다. 앞서 지난 2022년에는 매출 12억유로를 기록했었다. 지난해 판매수익 3억유로(약 4천억원) 가운데 1억4천만유로(약 2천억원)는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북미 매출은 2022년보다 16% 감소했다. 아디다스는 올해도 북미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재고가 여전히 많다면서도 이지를 제외한 부문은 올해 하반기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인격(人格)과 간격(間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이름의 발음에 관해서 썼더니 반론도 많았고, 이론을 제기하는 독자도 있었다. 한국인의 이름은 가정에서 부르는 게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한자어의 발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필자는 항상 교과서적인 문제와 답을 제시할 뿐이다. 교과적으로는 [윤서결]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옳다. 다만 본인이 [윤성넬]이라고 하면 그것도 답이 될 수 있다. 다만 맨 끝의 음이 [열]이 아니고 [열]이라면 일반적인 발음은 [윤서결]이 맞다. 오늘의 이야기는 똑같은 조건인데 달리 발음하는 것에 대해 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것들은 답이 없다. 오랜 습관에 의해 발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적’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 즉 ‘마음대로 발음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간격(間隔)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간격]이라고 발음하라고 나와 있다. 그

런가 하면 인격(人格)의 발음은 [인격]이라고 나와 있다. 똑같이 ‘ㄴ’ 뒤에 ‘ㄱ’이 오는데, 하나는 [격]으로 발음하고, 다른 하나는 [恪]으로 발음하라고 한다. 필수적 경음화와는 달리 앞 글자의 받침이 [ㄴ · ㄹ · ㄹ · ㅁ · ㅇ]으로 발음되어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나온다. “삼룡애 문재[문짜] 왔어”와 “우리 엄마 이름은 최문자[최문자]입니다”라고 할 때를 생각하면 쉽다. 경우에 따라 경음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단국대학교 한문교육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졸업 문학박사
중부대 교수
한국대학교수협의회 대표
한국어문학회 회장
저서: 한국어문화문법의 50여권

Korea Genuine Lubricants (운할유)



유압작동유 • 열매체유 • 기어유 • 엔진오일(발전기) • 기타

유인대 대표 0811 83 43 98 021 598 0222
이광선 이사 0812 1007 7732 08118411 134 (WA)
Natasha 0812 1121 1010 yusung.jayaabadi@gmail.com

PT. YUSUNG JAYA ABADI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대한민국 노통연관보일러 No.1

인도네시아에서도 그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보다 높은 레벨의 퍼포먼스를 실현, 노통보일러의 폭넓은 스테이지
“Higher Levels of Performance”



DMXN-Series

- 고성능 저녹스버너 탑재
- Siemens Control 채용
- 2-Damper 전자식 컨트롤로 Air, Gas의 정밀제어를 통한 최적의 연비실현



DMI-Series

- 컴팩트형 미니 노통보일러
- 협소한 공간에 최적의 보일러
- 모든 부대장비가 하나의 플랫폼상에 설치, 배선, 배관이 되어있어 현장 운반 설치가 용이



산업용 보일러 외길 54년!
(주) 대열보일러
DAEYEO BOILER CO., LTD.
INDONESIA AGENCY

영업 담당 : 이광선 이사
Tel. +62-021-598-0222 / +62-0812-100-77732
E-mail. salesyja@gmail.com / sunny@yusungjaya.com

본사 제조공장(서산 소재)



www.dylboiler.co.kr

SUNTECH

Making AUTOMATION FACTORY

With SUNTECH's Smart technology!

PRODUCTS



ST-6040HS-C3

3-컬러 컴퓨터 패턴 재봉기



SFT-10616

코딩 자수기



ST-666H(롤러 1본침), ST-777H(롤러 2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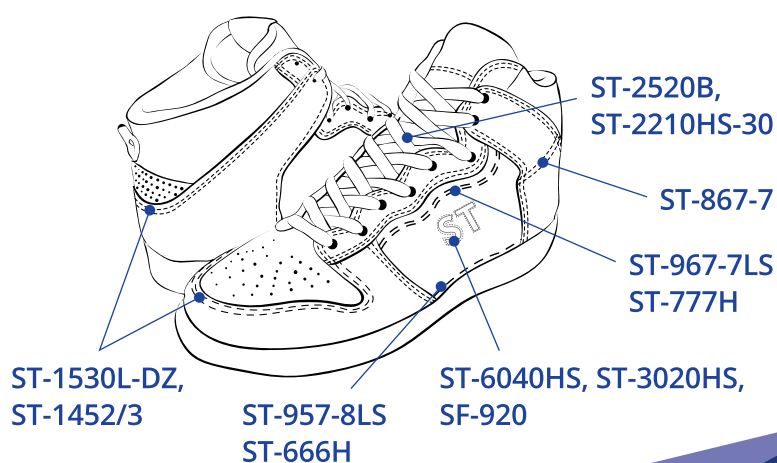
자동 땀폭 조절이 가능한 롤러 포스트 재봉기



ST-168 Series

아리안스 재봉기

APPLICATIONS



CIKARANG OFFICE

Ruko Podium Blok A No. 1 dan 2 JL. Mataram Lippo
Cikarang Kel. Cibatu Kec. Cikarang Selatan Bekasi 17550
TEL 021-2210-4936 FAX 021-2210-4994
021-2210-4937

JEPARA OFFICE

JL. Jepara-Kudus Desa Rengging RT. 006 RW. 001,
Pecangaan Jepara
TEL 0291-752-0288 FAX 0291-752-0588

REMBANG OFFICE

JL. Panglima Sudirman No. 156 6 RT. 002 RW. 03
Kabonganlor, Rembang, Jawa Tengah
TEL 0295-698-3799